방재사업 공사비 대납 논란에 "개선 노력"

조계종 · 문체부, 문제 지적한 방송보도에 입장

일부 사찰서 방재 시공업체에 공사비 대납케 해 논란 불거져
"책임 통감, 특별점검반 구성"
자부담 이행 여부 일제히 조사
위반 사실 발견 시 국고 환수도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전통사찰 방재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방송보도에 대해 조계종과 문체부가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8월 1일 문화부장 종민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부사찰의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수사당국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종단 소속 사찰의 일부에서 자부담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다만 총무원이 문제 사찰에 대납 받은 공사비를 공탁하라고 지시한 공문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은 "수사 대상 사찰에 공문을 보내 대납 받은 공사대금을 공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조계종은 "문체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현황과 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튿날 입장을 발표, "방재시스템 구축비용 중 전통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미이행,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의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 일제히 점검 △방재시스템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는 전면적 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 투명하게 추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소요예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사찰서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해 현재 사법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자체를 통해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또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운사 주지후보 자현 스님 당선

산중총회서 총 54표 얻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 주지후보에 자현 스님(前봉정사 주지 · 사진)이 당선됐다.

고운사는 8월 9일 경내 선체험관서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로 자현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선거인단 97명 중 89명이 참석했으며, 기호 2번 자현 스님은 54표를 획득했다. 경쟁후보인 기호 1번 호성 스님은 35표를 얻는 데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자현 스님은 "앞으로 여러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고운사를 수행정진의 교구, 모범적인 수행도량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량 건축불사뿐만 아니라 인재불사에 초점을 맞춰 교구를 운영하겠다. 교구 대중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현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14~16대 중앙종회의원과 16대 중앙종회 전반기 부의장, 봉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1999년 녹취, 도현 스님과 만든 허구"

'설정 스님 친자의혹' 친모 기자회견서 밝혀

"도와준다는 도현 스님 만나 살 붙여 수차례 걸쳐 녹음"

지난달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1999년 설정 스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 친모인 김○정 씨와 나눈 대화라고 주장한 녹취파일을 공개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 씨가 "해당 녹취는 도현 스님과 함께 만든 허구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8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교권자주위원회 의혹규명위원회에 출석해 친자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소명한 뒤 2층 회의실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 씨에 따르면 도현 스님이 공개한 1999년 녹취는 김 씨와 도현 스님이 함께 허구로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김 씨는 당시 딸 전○경 씨의 입양문제로 인해 입양을 주선한 설정 스님을 수소문하던 중이었다. 설정 스님은 암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김 씨는 도현 스님과 연락이 닿아 문제해결을 도와주겠다는 스님의 말에 하와이로 향했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김 씨. 당사자인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김 씨는 "도현 스님 자문을 받아 거짓이야기를 만들고, 살을 붙인 뒤 수차례에 걸쳐 녹음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뭐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을 믿었다. 그럼에도 스님은 그 녹취가 자신만이 아는 비밀인양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녹음에 대한 필요성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씨는 "도현 스님은 녹음의 목적이 세상에 퍼뜨리려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걸 알았지만 내 문제 해결에만 혈안이 됐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또한 설정 스님에게 제기한 친자인지 확인소송이 도현 스님의 제안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딸은 과거 어느 거사와의 사이에서 잉태된 생명이다. 설정 스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당시 저의 간청을 받아들여 입양을 도와주신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정 스님은 8월 7일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한 교수 연구실서 유전자검사를 위해 구강 점막세포를 채취했다. 이날은 설정 스님이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로부터 유전자 감정일을 지정받은 날이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말의 힘과 구업의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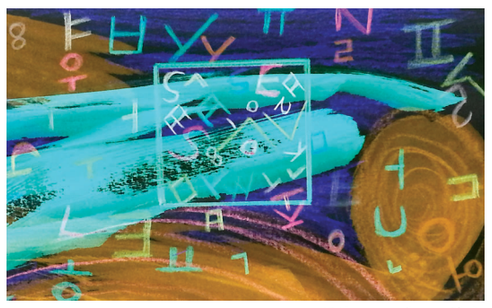
처처에서 진실공방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공방에서 어느 한 쪽은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자기 이익과 조직의 권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분노의 말 악구를 당연시하여 상대를 해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짓정보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데,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여 구업을 짓는 탈진실화 현상입니다.

구업(口業)은 거짓말(妄語), 교묘히 꾸미는 말(綺語), 이간질(兩舌), 분노의 말 악구(惡口)입니다. 구업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전에서는 일러주고 또 일러줍니다. 부처님 본생담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 카샤파 부처님 시절에 범패를 잘 부르는 젊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범패를 잘 부르지 못하는 노 비구를 조롱했다. '스님의 음성은 개 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젊은 비구는 노 비구를 조롱한 과보로 개 몸을 받았고 이제 청정한 계행을 지녀 해탈을 얻게 되었느니라."

<현우경 사미균제품>



구업 그림 · 조향숙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거나
축생 · 지옥에 떨어지기도
이웃 살리는 망어 '개차법'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착한 말은 선업의 힘으로, 악한 말은 악업의 무게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매일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랑과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남의 흉을 보고,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공방을 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구업을 짓습니다. 자기 자랑도 해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업을 짓더라도 거짓말을 꼭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거짓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깡패들이 여학생을 쫓고 있는데 여학생을 숨겨주고 깡패들에게는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것이 지범개차(持犯開遮) 또는 개차법(開遮法)입니다. 계율을 지킬 수 없는 경우 허용한 후에 다시 막는 양심의 자리 보살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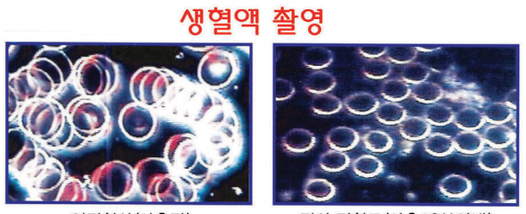
5계의 불망어계로 구업을 짓는 해로운 말을 다스려 바른 말(正語)을 하면서, 무재칠시의 언시와 사섭법의 애어를 몸에 배이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口是禍門)'를 '입은 복의 문이다(口是福門)'로 바꿉시다.

바른 말은 바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구업을 참회하는 '정구업 진언'을 늘 암송합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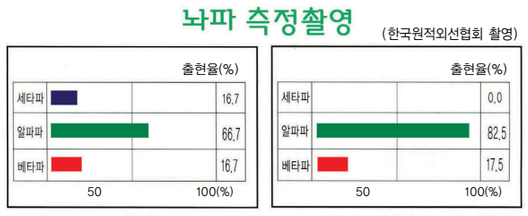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한 번으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CS137(세슘)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묵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41년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 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지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적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 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 악취 제거 탁월.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